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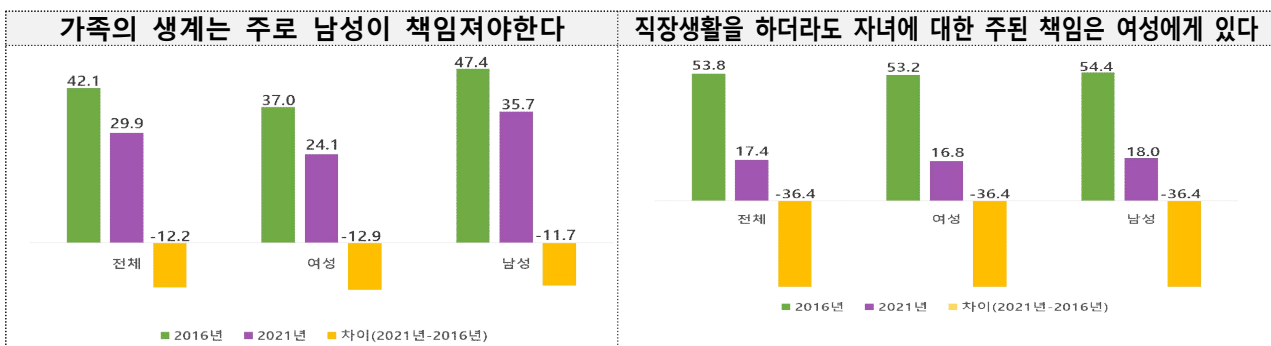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개요

- (조 사 명)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021호) (제2차)
-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 (조사기간) 2021. 9. 27. ~ 10. 12.
- (표본규모·조사대상) 전국 4,490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총 8,358명)
 - * 조사대상 4,510가구 중 4,490가구 응답(완료율 99.6%)
 - (성별) 여성 4,351명(52%), 남성 4,007명(48%)
 - (연령) 15세~18세 3.9%(이하 '청소년'), 19세~29세 11.9%(이하 '20대'), 30세~39세 12.8%(이하 '30대'), 40세~49세 18.9%(이하 '40대'), 50~59세 19.2%(이하 '50대'), 60세 이상 33.2%
 - * 1단계 확률비례계통추출, 2단계 단순임의추출 통해 표본추출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 자기기입, 인터넷 조사 병행
- (조사내용) 성평등 의식 및 우리사회 양성평등 수준, 정책 수요, 가족 가치관 및 가족생활, 경제활동의 어려움, 사회관계 및 사회참여, 시간 활용, 건강, 인권과 안전, 코로나19 영향 등
- (조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통계청(조사 실시)
 - * 참고 : 2016년 양성평등 실태조사는 청소년(만15-18세)과 성인(만19세 이상) 조사를 각각의 조사표로 별도 진행한 관계로 필요에 따라(2016년 결과와의 비교 등) '만 15세 이상 조사 값'과 '만 19세 이상 조사 값'이 혼용되어있음 (만 15세 이상 조사 값 별도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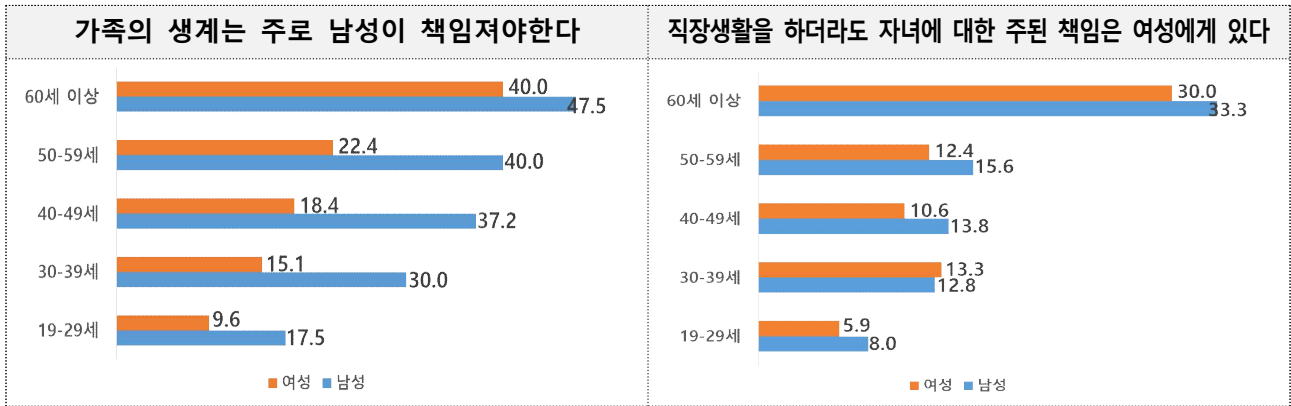
1 성평등 의식 및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1-1. 성별분업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생계부양책임, 직업의 성별분리 인식이 강한 경향
- 가정에서의 성역할 분업 인식이 완화되었는데,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한다'에 대한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가 12.2%p 감소하였으며, (2016년 42.1%→2021년 29.9%)
 -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은 크게(36.4%p) 감소하였음(2016년 53.8%→2021년 17.4%)



○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남녀 모두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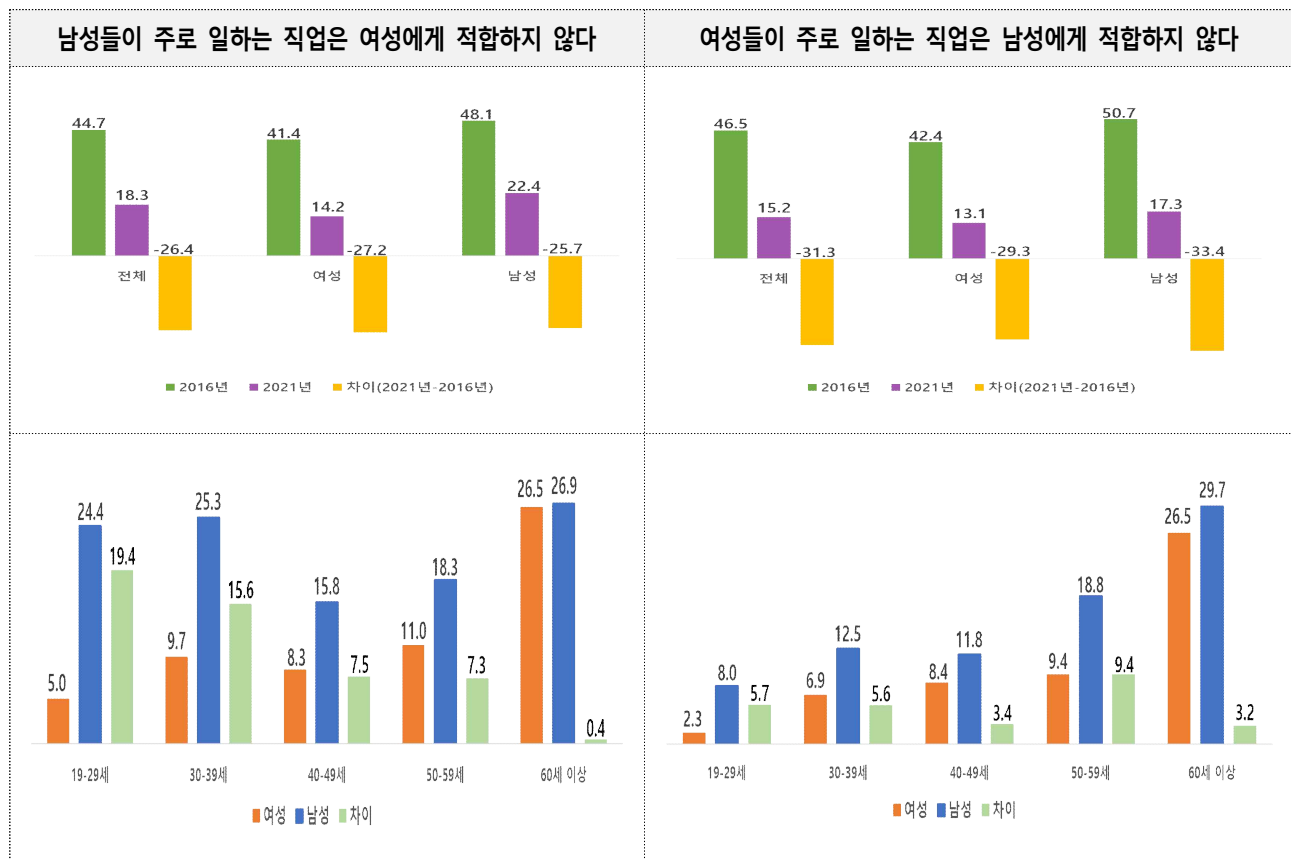


□ 직업에서의 성별 직종에 대한 고정관념, 남편의 아내보다 낮은 소득, 직장 내 상급자로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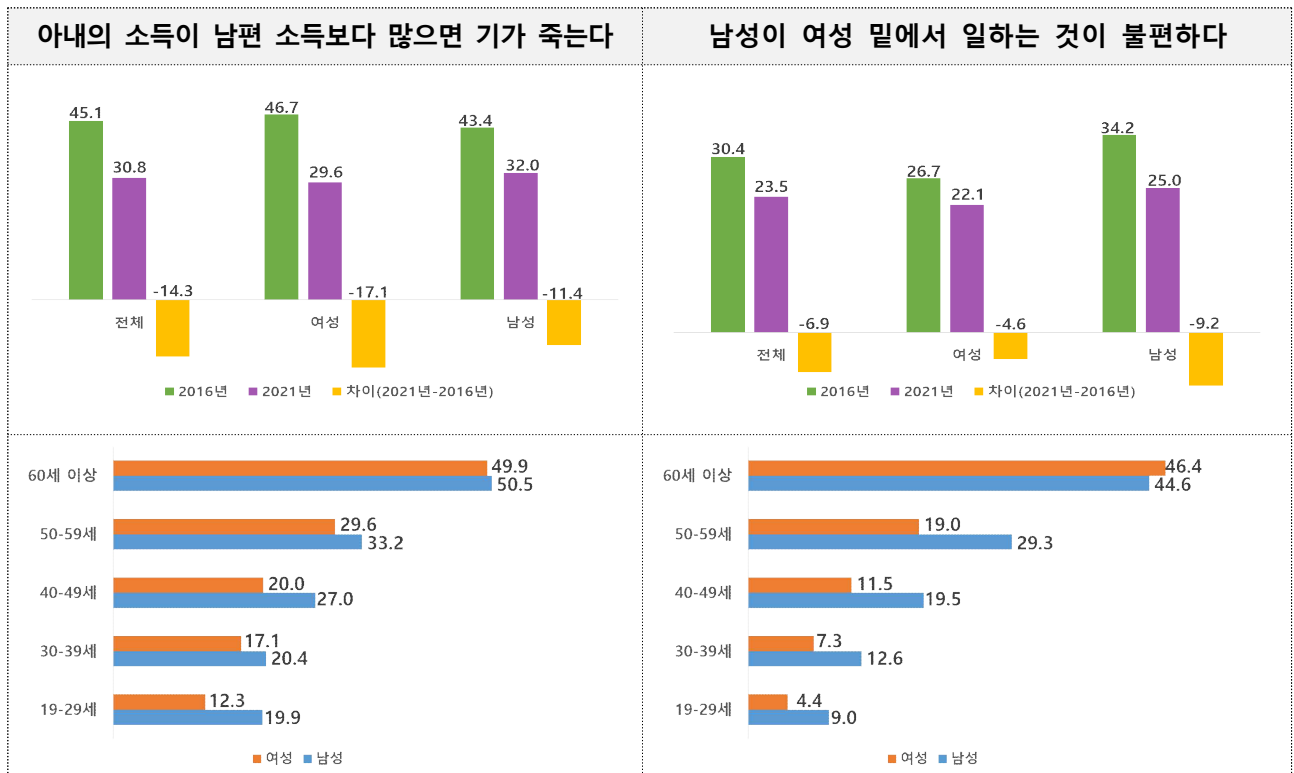
○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크게 완화됐으나(2016년 44.7%→2021년 18.3%)

- 20대(24.4%), 30대(25.3%), 60세 이상(26.9%) 남성 4명 중 1명이 여성이 남성 다수직업을 갖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응답

○ 남성이 간호사, 보육교사와 같은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6년 전체 국민의 46.5%에 비해 2021년 15.2%로 크게 감소(31.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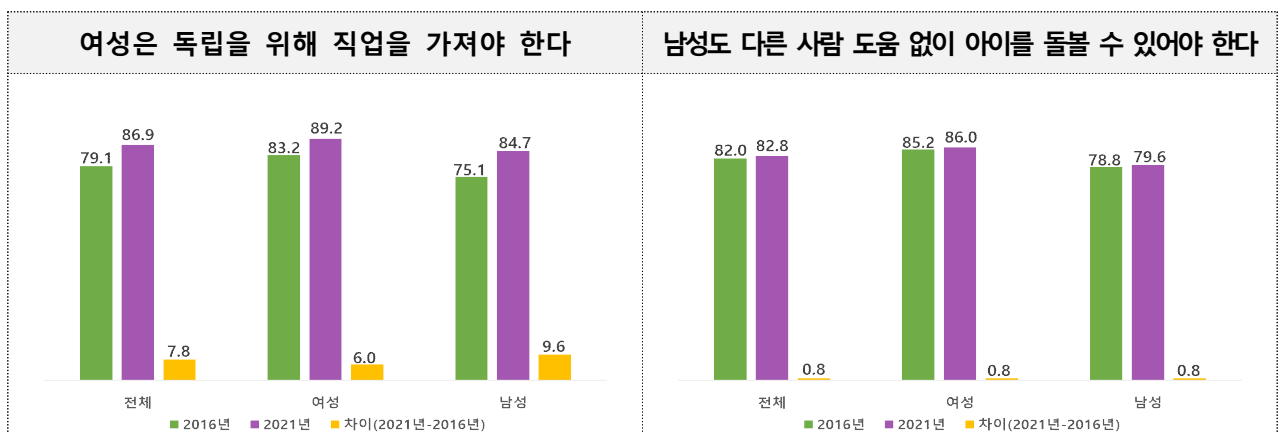


- 남녀의 지위 변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약화되었는데, ‘아내의 소득이 남편소득보다 많으면 기가 죽는다’와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에 대한 긍정 응답이 각각 45.1%에서 30.8%(-14.3%p), 30.4%에서 23.5%(-6.9%p)로 감소함



- 여성의 경제적 독립, 남성의 돌봄 능력 필요성 등 성역할 변화에 대해 80% 이상의 국민이 동의함

- 5년 전에 비해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이 되려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 ‘남성도 다른 사람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1-2. 영역별 성평등 수준 체감도

- 사회 전반 성평등 수준에 대해 여성 65.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27.8%가 '남녀평등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남성은 41.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41.7%가 '남녀평등하다'고 응답
-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남성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40대와 50대에서도 절반이 되지 않았으며 청소년은 31.5%, 20대는 29.2%만이 동의했다.
- 5년 전에 비해, '남녀평등하다' 13.7%p 증가(21.0%→34.7%),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9.2%p 감소(62.6%→53.4%),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4.6%p(16.4%→11.8%) 감소

<영역별 성평등 수준 체감도>

(단위: %, %p)

구 분		남녀평등하다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2016	2021	2016	2021	2016	2021
전체*	전체	21.0	34.7(▲13.7)	62.6	53.4(▼9.2)	16.4	11.8(▼4.6)
	여성	14.6	27.8(▲13.2)	74.2	65.4(▼8.8)	11.2	6.7(▼4.5)
	남성	27.5	41.7(▲14.2)	50.8	41.4(▼9.4)	21.6	17.0(▼4.6)
15-18세	여성	-	36.5	-	60.3	-	3.2
	남성	-	54.2	-	31.5	-	14.2
20대	여성	9.4	22.4(▲13.0)	81.9	73.4(▼8.5)	8.7	4.3(▼4.4)
	남성	28.7	46.8(▲18.1)	35.9	29.2(▼6.7)	35.4	24.0(▼11.4)
30대	여성	7.2	19.6(▲12.4)	84.5	76.8(▼7.7)	8.4	3.6(▼4.8)
	남성	23.7	40.0(▲16.3)	54.1	40.7(▼13.4)	22.2	19.3(▼2.9)
40대	여성	11.6	22.8(▲11.2)	79.3	68.6(▼10.7)	9.1	8.5(▼0.6)
	남성	22.6	39.1(▲16.5)	61.0	47.0(▼14.0)	16.4	13.9(▼2.5)
50대	여성	15.9	27.8(▲11.9)	71.4	65.5(▼5.9)	12.7	6.8(▼5.9)
	남성	31.3	38.0(▲6.7)	50.7	46.4(▼4.3)	18.0	15.6(▼2.4)
60대 이상	여성	24.2	37.5(▲13.3)	60.5	54.1(▼6.4)	15.2	8.4(▼6.8)
	남성	31.2	43.8(▲12.6)	51.4	42.1(▼9.3)	17.3	14.0(▼3.3)

* '전체' 통계는 16년과 21년의 비교를 위해 청소년은 제외

- 영역별 성평등 수준의 경우, 여성에게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된 영역은 돌봄 책임 분담(-1.26점)

* -4점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0점이 남녀평등, 4점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

- 모든 영역의 평균이 음(-)의 값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남녀평등하다고 인식된 영역은 '건강수준'과 '교육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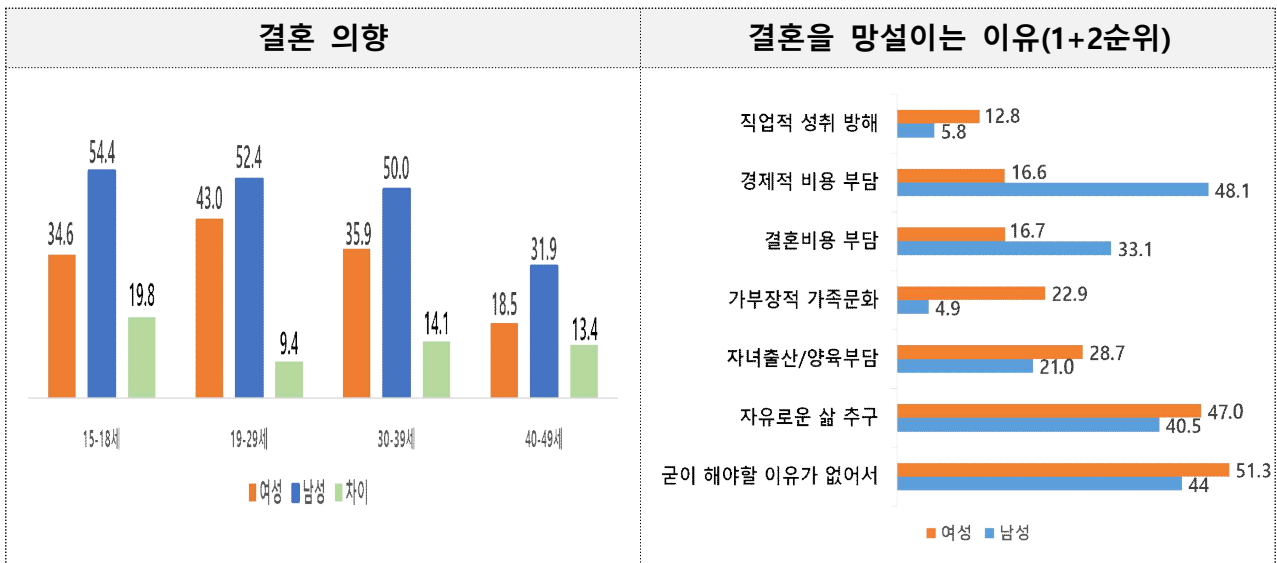
* 건강수준(-0.09점)>교육수준(-0.21점)>경제활동참여(-0.68점)>성별고정관념(-0.69점)>의사결정참여(-0.83점)>소득수준(-0.88점)>돌봄책임분담(-1.26점)

2 가족 가치관 및 가족생활

2-1.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가. 결혼 및 출산 의향과 망설이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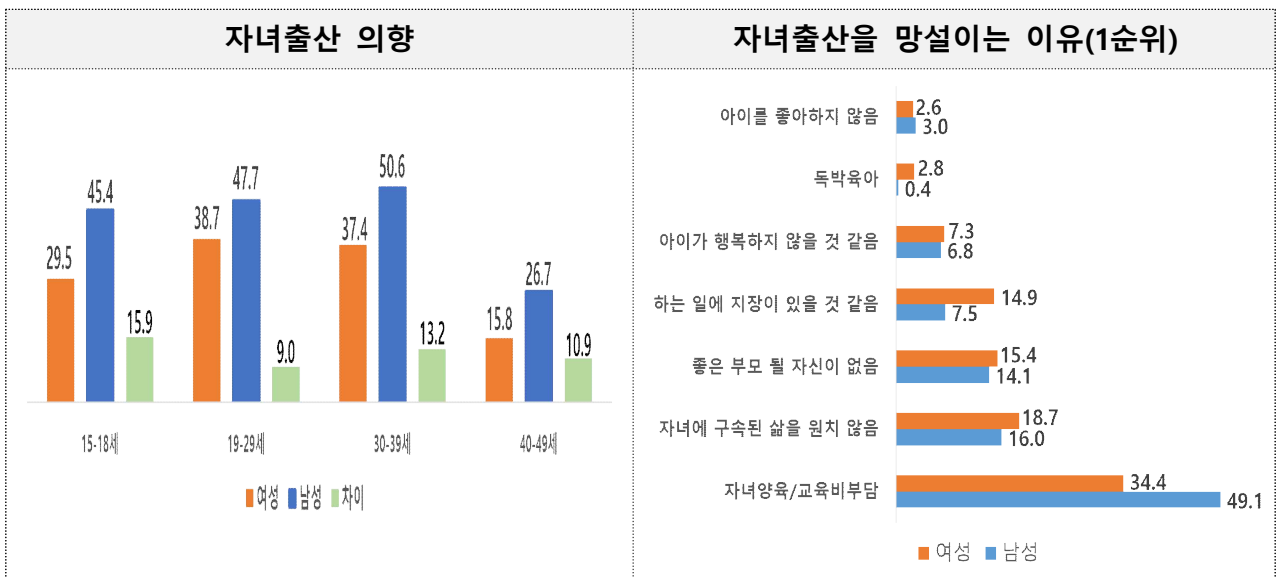
- 결혼하지 않은 남성 50.0%, 결혼하지 않은 여성 38.3%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전체 44.8%) *15세 이상 조사 값
- 남성의 경우, 15세~30대까지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 없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인 반면, 여성은 20대가 43.0%로 가장 높고 청소년은 34.6%, 30대는 25.9%임
- 결혼 의사의 성별 격차는 청소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여성 34.6%, 남성 54.4%, 차이 19.8%p)



- 남녀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의사가 낮아지지만 남성에게서 소득수준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남성: 저소득층 39.8%, 중·저소득층 42.2%, 중·고소득층 51.2%, 고소득층 55.2%, 여성: 저소득층 31.8%, 중·저소득층 38.2%, 중·고소득층 38.4%, 고소득층 42.0%)
-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1+2순위)는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47.5%)',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서(43.7%)'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임
- 성별로 가장 차이가 나는 응답 항목은 '경제적 부양 부담'(여성 16.6%, 남성 48.1%),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가족 관계'(여성 22.9%, 남성 4.9%)임

나. 자녀를 가질 의향과 망설이는 이유

- 자녀가 없는 15~49세 국민 중 남성 45.4%, 여성 34.6%이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전체 40.5%) *15세 이상 조사 값
 - 청소년의 경우,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9%p 낮음(여성 29.5%, 남성 45.4%)
 -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5~6%p씩 증가(중·저소득층 40.3%, 중·고소득층 46.8%, 고소득층 52.2%)
-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교육비 부담(42.0%)'이었음(남성 49.1%, 여성 34.4%)
 -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 응답한 여성은 14.9%로 남성(7.5%)에 비해 높음



2-2. 부부간 역할 분담과 평등 인식

가. 부부간 역할 분담

- (의사 결정) '아내와 남편이 반반 한다(67.2%)'가 가장 많음
 - 남녀 모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아내와 남편이 반반한다'는 응답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증가함
 -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별로는 '반반 한다'는 응답이 '맞벌이', '남성 홀벌이', '여성홀벌이', '모두 미취업' 순으로 높음

- 여성홀별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결정한다’는 응답이 많음

□ (생활비)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음(반반 부담 31.2%, 아내가 주로 부담 10.7%)

- 2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성별·연령대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와 30대에서 ‘반반 부담한다’는 응답이 높고,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부담한다’는 응답이 낮아짐
 -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반반 부담한다’는 응답이 증가하며 중졸 이하나, 소득수준 중·저소득층 이하의 집단에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높음

□ (가사·돌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음(반반 부담 26.8%, 남편이 주로 부담 4.2%)

- 모든 연령대에서 약 55%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돌봄을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20대·30대 부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반 한다’는 응답이 많음

<가사·돌봄 부담>

(단위: %)

구분		전적으로+주로 아내	반반	전적으로+주로 남편
전체	전체	68.9	26.8	4.2
	여성	71.5	24.9	3.7
	남성	66.6	28.5	4.9
연령	여성	19세~29세	45.3	0.0
		30세~39세	32.2	4.2
		40세~49세	22.8	2.0
		50세~59세	22.5	4.7
		60세 이상	23.3	4.0
	남성	19세~29세	40.6	3.5
		30세~39세	36.7	2.6
		40세~49세	27.4	4.3
		50세~59세	28.6	4.1
		60세 이상	25.0	7.0

-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에게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는 응답은 감소, ‘반반 한다’는 응답은 증가함

- 맞벌이라 할지라도 60% 이상(여성 65.5%, 남성 59.1%)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함
 - 여성홀벌이 가정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한다’고 응답함(여성 54.9%, 남성 51.6%)
 - * 남성홀벌이 가정 : ‘전적으로 또는 주로 남편이 가사와 돌봄을 한다’ 여성 2.4%, 남성 3.4%
-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사/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고 20, 30대 중심으로는 변화하는 양상
 - 남성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여성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가사와 돌봄을 부담하는 경우는 46.6%이며,
 - 여성이 생활비, 가사, 돌봄 모두를 전적으로/주로 분담하는 경우는 8.2%임

2-3. 자녀돌봄 활동

- 여성의 경우 모든 활동에서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남성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때때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숙제 또는 공부지도’의 경우 ‘자주 또는 매우 자주 한다’는 여성이 57.5%, 남성이 19.9%였으며, ‘부모 참여 활동’의 경우 여성이 45.0%, 남성이 15.8%로 크게 차이가 남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남녀 모두 대부분의 돌봄 활동이 증가했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함

<자녀돌봄 활동>

(단위: %, %p)

활동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하지 않는다	때때로 한다	자주+매우 자주한다	하지 않는다	때때로 한다	자주+매우 자주한다
숙제 또는 공부지도	전체	29.0	40.8	30.2	21.3(▼7.7)	40.6(▼0.2)	38.1(▲7.9)
	여성	18.8	38.8	42.4	13.8(▼5)	28.7(▼10.1)	57.5(▲15.1)
	남성	40.6	43.1	16.2	28.4(▼12.2)	51.7(▲8.6)	19.9(▲3.7)
등하교 (등하원) 동행	전체	43.2	25.4	31.4	32.0(▼11.2)	32.2(▲6.8)	35.8(▲4.4)
	여성	37.7	20.4	41.9	27.0(▼10.7)	23.1(▲2.7)	49.9(▲8)
	남성	49.3	31.2	19.5	36.8(▼12.5)	40.6(▲9.4)	22.6(▲3.1)
부모참여 활동	전체	31.3	41.4	27.3	30.1(▼1.2)	40.0(▼1.4)	29.9(▲2.6)
	여성	20.0	42.2	37.9	17.8(▼2.2)	37.2(▼5.0)	45.0(▲7.1)

활동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하지 않는다	때때로 한다	자주+매우 자주한다	하지 않는다	때때로 한다	자주+매우 자주한다
	남성	44.1	40.6	15.3	41.7(▼2.4)	42.5(▲1.9)	15.8(▲0.5)
아플 때 돌봐주거나 병원 데려가기	전체	-	-	-	5.4	32.0	62.6
	여성	-	-	-	3.1	16.5	80.3
	남성	-	-	-	7.5	46.3	46.1
학업 등 학원일정관리	전체	-	-	-	21.6	31.3	47.1
	여성	-	-	-	5.8	21.1	73.2
	남성	-	-	-	36.5	41.0	22.5

* '아플 때 돌봐주거나 병원 데려가기', '학원일정 관리'는 2021년 신규 항목

3 경제활동의 어려움

3-1.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가. 성차별 관행과 직장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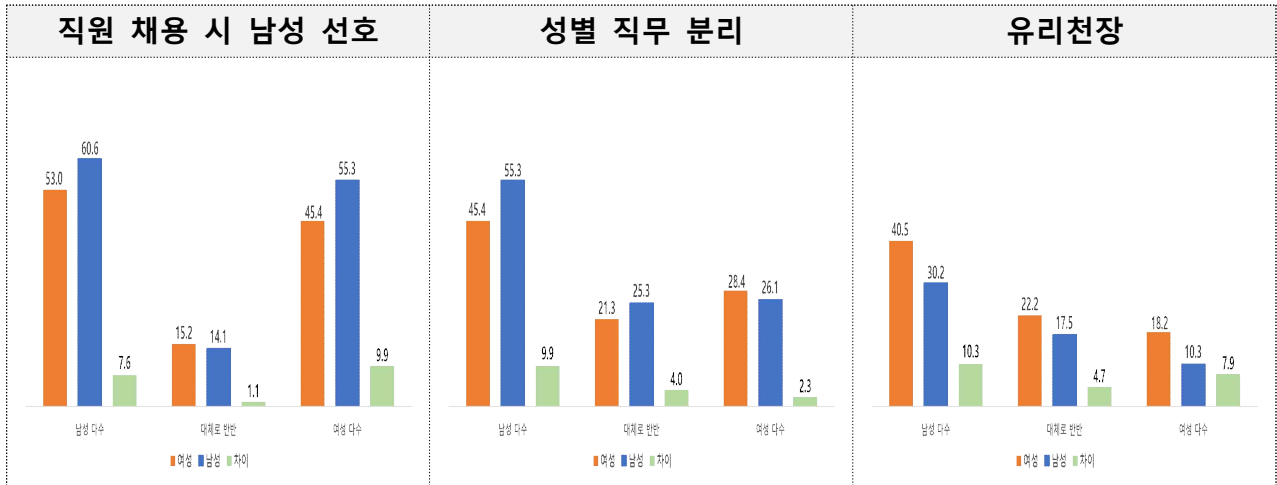
□ (인사) 성차별적 결과를 초래하는 인사 관행*은 대체로 완화

<성차별 관행과 직장문화(인사)>

(단위: %, %p)

구분	직원채용 시 남성 선호		성별직무분리		유리천장 관행	
	2016년	2021년	2016년	2021년	2016년	2021년
전체	38.7	33.9(▼4.8)	49.4	39.0(▼10.4)	29.6	24.5(▼5.1)
여성	14.4	18.5(▲4.1)	38.2	29.7(▼8.5)	29.2	23.7(▼5.5)
남성	54.9	45.6(▼9.3)	57.0	46.1(▼10.9)	29.9	25.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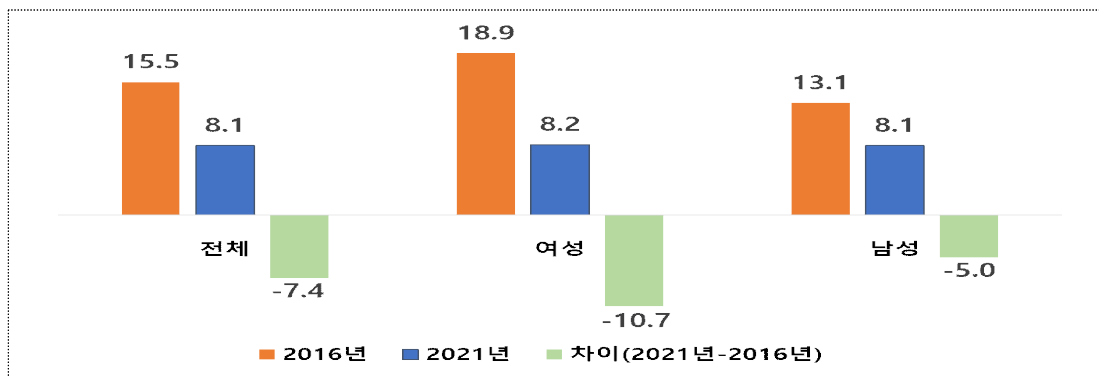
-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성차별 관행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
 - '직원 채용 시 성차별 관행' 및 '성별직무분리 관행'에 대해 남성은 각각 45.6%, 46.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각각 18.5%, 29.7%가 '그렇다'고 응답
- '직원 채용 시 성차별 관행'에 대해 남성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인지하는 정도가 높아짐(20대 35.2%, 30대 40.7%, 40대 45.9%, 50대 51.8%, 60세 53.9%)
- 남성이 다수 종사하는 사업장일수록 성비가 대체로 비슷하거나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사업장에 비해 성차별 관행이 지배적으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인사 시 성차별 관행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증가함

□ (임신·출산·육아휴직 불이익) ‘우리 회사는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8.1%,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12.9%가 ‘그렇다’고 응답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임신·출산 시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7.4%p 감소함(2016년 15.5%→2021년 8.1%)



□ (휴가사용·정시퇴근 어려움)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 ‘우리 회사는 정시퇴근하면 눈치가 보인다’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음

-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여성은 ‘5~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중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28.0%), 남성은 ‘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중에서 가장 높았음(25%)
- 정시퇴근의 경우, 여성은 ‘30~1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7.5%)’가, 남성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많았음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연차휴가 사용, 정시퇴근 모두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함

<성차별 관행과 직장문화(휴가·정시퇴근 어려움)>

(단위: %, %p)

구분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		정시퇴근하면 눈치가 보인다	
	2016년	2021년	2016년	2021년
전체	47.6	22.9(▼24.7)	42.6	15.7(▼26.9)
여성	52.0	23.1(▼28.9)	42.0	14.0(▼28.0)
남성	44.5	22.8(▼21.7)	43.1	16.9(▼26.2)

나.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의 용이성

- (출산전후 휴가제도)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9.9%,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1.3%,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18.9%
 - 남성이 다수이거나(58.7%) 여성이 다수인(58.4%)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종사자의 성별 비율이 비슷한 사업장(63.9%)에 종사할 때 '남녀 모두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의 경우 '남녀 모두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고(43.4%),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30.0%)
 -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74.7%로 매우 높음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출산전후 휴가제도를 '남녀 모두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10%p 이상 증가(2016년 48.9%→2021년 59.9%)했으나,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크게 증가함(2016년 4.5%→2021년 18.9%)

<출산전후 휴가제도 이용>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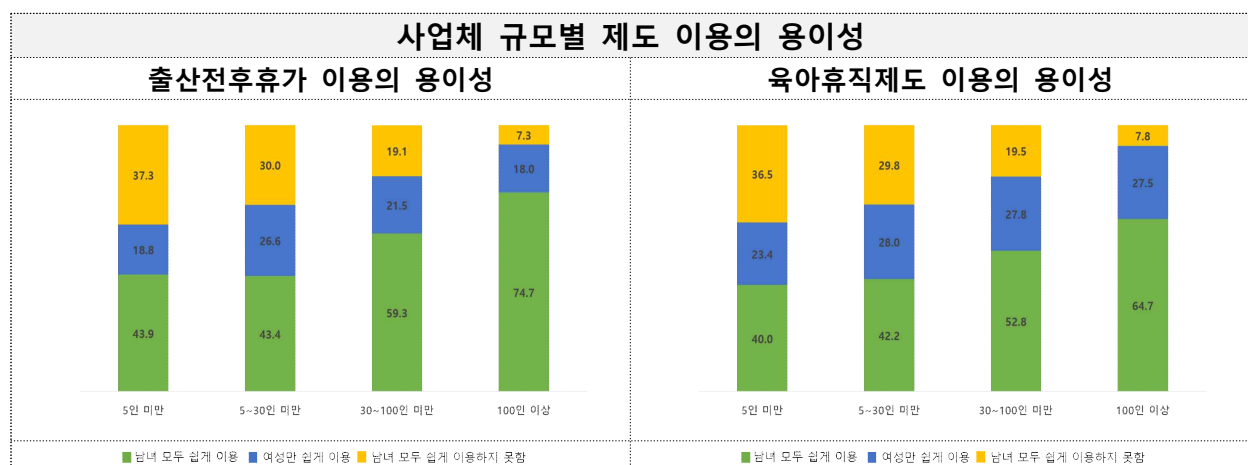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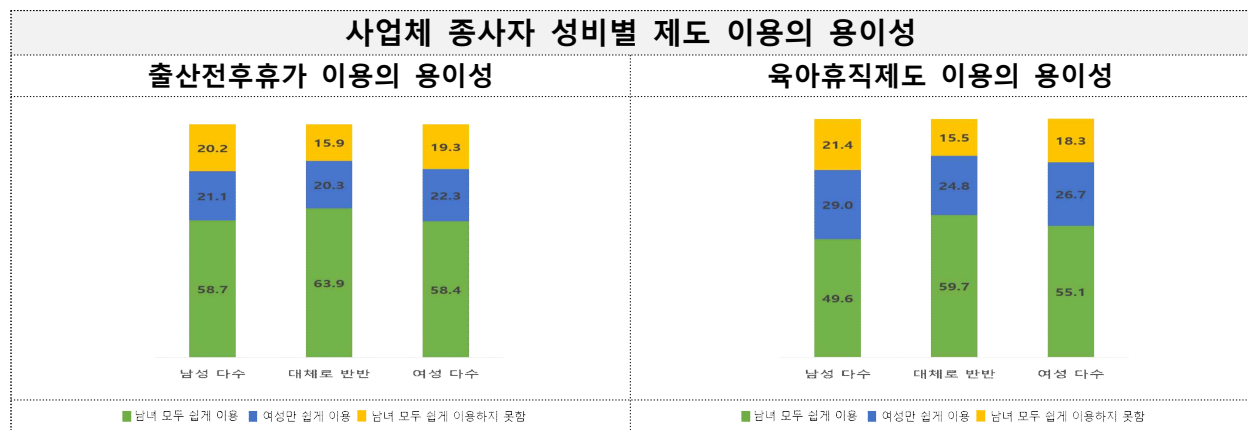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21년		
	남녀 모두 쉽게 이용	여성만 쉽게 이용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함	남녀 모두 쉽게 이용	여성만 쉽게 이용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함
전체	48.9	46.6	4.5	59.9(▲11.0)	21.3(▼25.3)	18.9(▲14.4)
여성	44.1	51.1	4.8	57.8(▲13.7)	22.0(▼29.1)	20.2(▲15.4)
남성	52.0	43.6	4.3	61.3(▲9.3)	20.7(▼22.9)	18.0(▲13.7)

- (육아휴직제도) ‘남녀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53.6%,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7.3%,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19.0%
- 남성인 다수인 사업장 종사자보다 남녀가 비슷하거나 여성이 다수인 사업장 종사자 중 ‘남녀 모두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하지 못함(5인 미만 사업체 40.0%, 5~30인 미만 42.2%)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증가했으나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증가
 - 이는 5년 전에 비해 제도에 대한 대중적 이해 및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제도’로 이해하는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가능

<육아휴직제도 이용>

(단위: %, %p)

구분	2016년			2021년		
	남녀 모두 쉽게 이용	여성만 쉽게 이용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함	남녀 모두 쉽게 이용	여성만 쉽게 이용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함
전체	48.7	43.5	7.8	53.6(▲4.9)	27.3(▼16.2)	19.0(▲11.2)
여성	46.7	42.4	10.9	54.6(▲7.9)	26.6(▼15.8)	18.8(▲7.9)
남성	50.0	44.2	5.8	52.9(▲2.9)	27.8(▼16.4)	19.2(▲13.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47.6%,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4.0%,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28.4%
 - 남성이 다수인 사업장의 경우,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43.6)’는 응답이 ‘남녀 비율이 비슷한 사업장(51.1%)’, ‘여성이 다수인 사업장(51.1%)’에 비해 눈에 띄게 적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단위: %, %p)

구분	2016년			2021년		
	남녀 모두 쉽게 이용	여성만 쉽게 이용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함	남녀 모두 쉽게 이용	여성만 쉽게 이용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함
전체	49.1	37.0	13.9	47.6(▼1.5)	24.0(▼13.0)	28.4(▲14.5)
여성	46.3	34.9	18.8	48.4(▲2.1)	20.2(▼14.7)	31.3(▲12.5)
남성	50.9	38.4	10.8	47.0(▼3.9)	26.7(▼11.7)	26.3(▲15.5)

-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47.2%,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42.6%
 - ‘남녀 비율이 비슷한 사업장’의 경우,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53.8%)’는 응답이 높음
 - 사업장 규모가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 증가 (5인 미만 사업장 36.6%, 100인 이상 사업장 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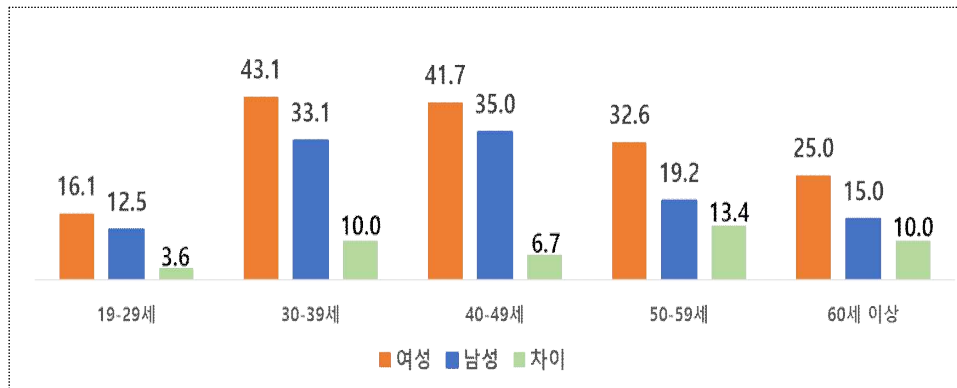
3-2. 자영업자의 어려움

- 수익이 없거나 적자인 자영업자는 12.8%였으며, 여성(16.2%)이 남성(11.0%)보다 많음
 - 2016년 이후 소득감소는 여성 자영업자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수익이 없거나 적자’ 여성 2016년 3.4%→2021년 16.2%, 남성 2016년 4.1%→2021년 12.8%)
 - 남성 자영업자의 순수익은 367.7만원인 반면, 여성 자영업자의 순수입은 257.3만원으로 남성의 70%에 불과함

3-3. 취업자의 가사·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

□ 전체 취업자 27.7% ‘가사·양육·돌봄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가운데(여성 32.2%, 남성 24.3%), 남녀 모두 자녀 양육기에 있는 30대(여성 43.1%, 남성 33.1%)와 40대(여성 41.7%, 남성 35.0%)에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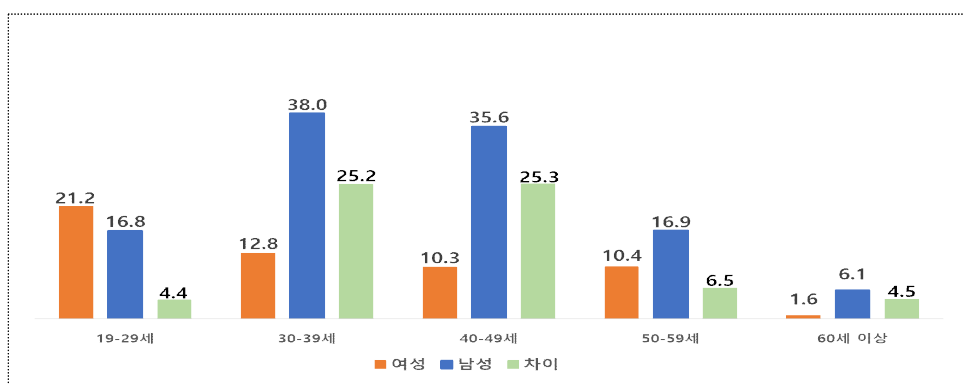


- 남녀 모두 12세 이하 아동 자녀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가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가사·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54.7%)이 남성(43.7%)에 비해 더 높음
- 소득수준별로는 중·고소득층 내에서 가사·양육·돌봄 어려움의 성별 격차가 가장 컸으며(여성 37.2%, 남성 26.0%), 맞벌이 가정의 여성 41.7%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30.2%에 그침

3-4. 구직활동 경험 및 창업의향

□ 4주간(21.8.22~9.18.) 구직활동 경험을 한 비취업자 10.3%(여성 8.3%, 남성 13.9%)

- 20대 여성 비취업자의 구직활동 경험(21.2%)이 20대 남성(16.8%)에 비해 높았으나, 30대와 40대에서는 여성은 감소(30대 12.8%, 40대 10.3%)하고 남성은 크게 증가(30대 38.0%, 40대 35.6%)함



- 취업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의 경우, 민간사업체(64.9%), 공공기관 서비스(57.0%), 여성관련 취업지원기관(10.1%), 대학 내 취업지원기관(9.9%) 순임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경험에 있는 구직자 비율이 크게 증가함(2016년 44.8%→2021년 57.0%)
- * 민간사업체(잡코리아, 리크루트, 잡파인드, 알바천국 등), 공공기관 서비스(워크넷, 잡영, 월드잡, 시·군·구청 일자리센터 등), 여성관련 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취업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민간서비스	공공기관 서비스	여성관련 취업지원기관	대학 내 취업지원기관	없음
2021년	전체	64.9	57.0	10.1	9.9	8.2
	여성	66.7	53.2	19.6	8.3	5.0
	남성	63.0	61.0	0.0	11.6	11.6
2016년	전체	66.2	44.8	10.0	7.3	12.3
	여성	60.8	44.2	17.5	4.2	12.4
	남성	72.7	45.6	1.1	10.9	12.2

- 구직자 중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2016년 8.3%→2021년 16.1%)은 여성의 증가폭(2016년 5.5%→2021년 14.9%)이 남성의 증가폭(2016년 11.1%→2021년 17.3%)보다 큼

4 시간 활용

4-1. 생활영역별 현재 사용시간

- '생리적인 시간' 8.4시간, '일하는 시간' 6.0시간, '여가 시간' 3.9시간, '가사 시간' 1.9시간, '학습 및 자기계발 시간' 1.2시간, '돌봄 시간' 0.9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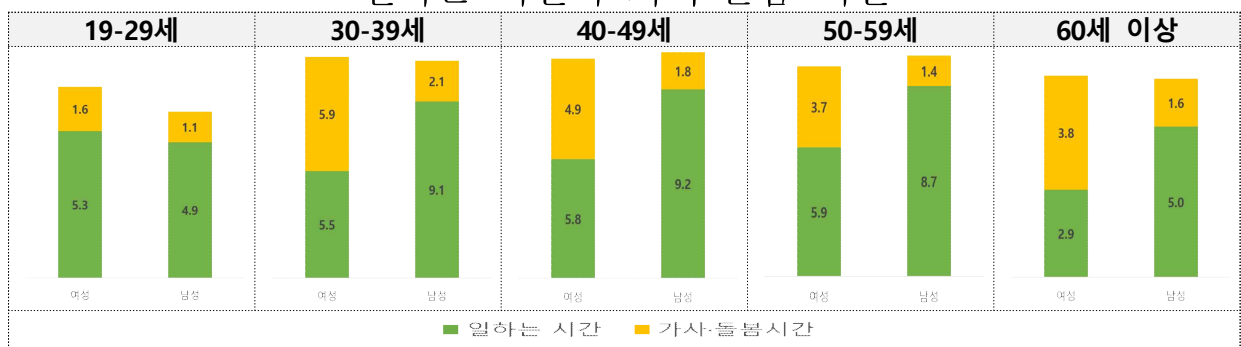
<생활영역별 현재 사용시간>

(단위: 시간)

구분	생리적 시간		일하는 시간		학습 및 자기계발 시간		가사시간		돌봄시간		여가시간	
	'16	'21	'16	'21	'16	'21	'16	'21	'16	'21	'16	'21
전체	8.3	8.4 (▲0.1)	6.2	6.0 (▼0.2)	1.1	1.2 (▲0.1)	1.9	1.9	0.6	0.9 (▲0.3)	4.6	3.9 (▼0.7)
여성	8.4	8.4	4.8	4.8	1.1	1.1	2.7	2.7	0.9	1.3 (▲0.4)	4.7	4.0 (▼0.7)
남성	8.2	8.3 (▲0.1)	7.7	7.2 (▼0.5)	1.1	1.3 (▲0.2)	1.1	1.1	0.3	0.5 (▲0.2)	4.4	3.9 (▼0.5)

- ‘일하는 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2.4시간 긴 반면, ‘가사시간’과 ‘돌봄 시간’은 각각 1.6시간, 0.8시간 여성이 남성보다 길게 나타남
- ‘가사시간’의 경우, 30대(여성 2.4시간, 남성 1.1시간), 40대(여성 2.9시간, 남성 1시간), 50대(여성 3시간, 남성 1시간), 60세 이상(여성 3.2시간, 남성 1.3시간) 등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
- ‘돌봄시간’은 19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길었으며, 30대의 경우 남녀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돌봄 시간이 길었지만 성별 격차 또한 가장 컸음(여성 3.5시간, 남성 1.0시간)
-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돌봄시간’이 남성은 0.7시간, 여성은 1.4시간으로 여성이 2배 길었으며,
- 특히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남성의 평일 돌봄 시간이 1.2시간 인데 비해 여성은 3.7시간으로 3배를 돌봄 노동에 할애하고 있었음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남성의 경우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은 줄고 자기 계발과 돌봄을 위한 시간 사용이 늘어난 반면, 여성의 경우 일과 가사에 사용하는 시간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가 시간이 줄고 돌봄시간이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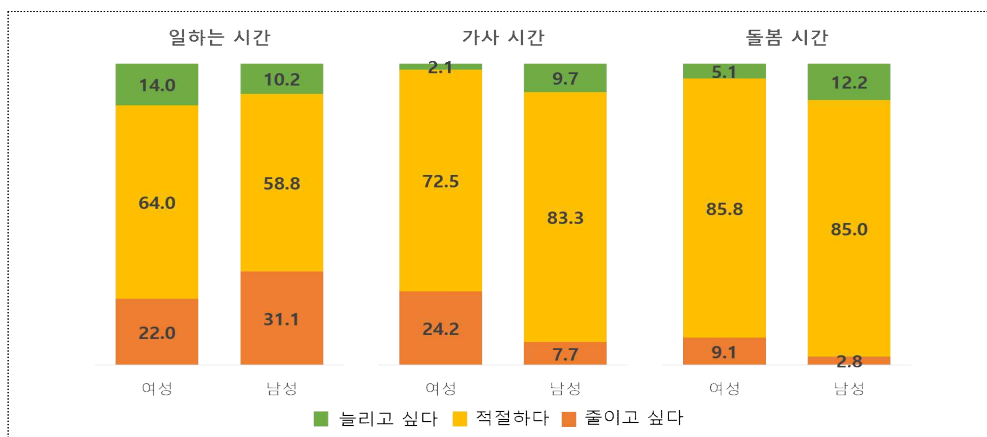
<일하는 시간과 가사·돌봄 시간>



4-2. 생활영역별 희망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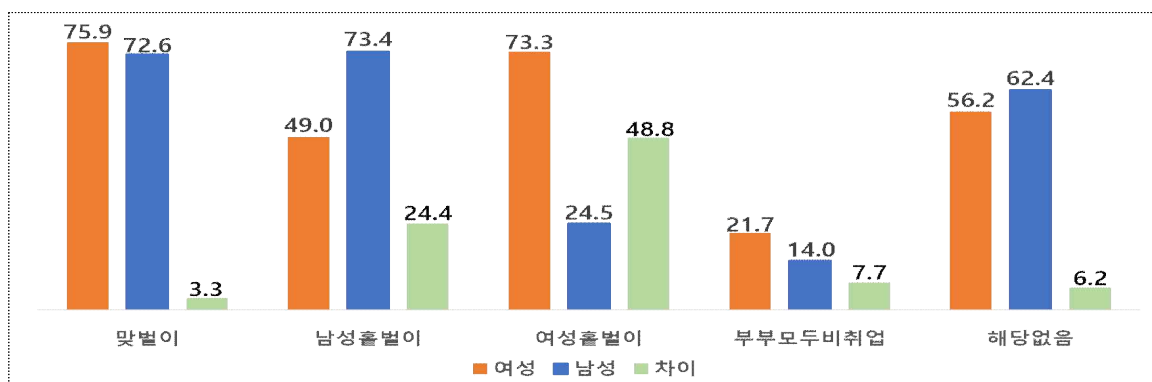
- (일하는 시간) 남성 31.1%가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22.0%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다’는 2016년 57.4%에서 2021년 61.4%로 4.0%p 증가함
- (가사 시간) 여성의 경우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30대 27.9%, 40대 32.9%, 50대 29.7%인 반면 남성의 경우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10% 미만으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5년 전과 동일한 가사시간에 대해 남성은 '적절하다'고 보는 반면, 여성은 '줄이고 싶다'고 응답함
- (돌봄 시간) 전체적으로 여성은 '늘리고 싶다'는 수요가 매우 적고 30대의 경우 '줄이고 싶다'가 21.8%인 반면 남성의 경우 '적절하다'가 전 연령대에서 73.8%~96.1% 내외로 나타남
- 5년 동안 여성의 돌봄 시간은 0.4시간, 남성의 돌봄 시간은 0.2시간 늘어났는데 돌봄 시간 사용 수요에서 남녀 모두 '줄이고 싶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음



4-3. 시간 부족 정도

-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 61.8%(여성 59.8%, 남성 63.8%), '여유있다' 38.2%(여성 40.2%, 남성 36.1%)
- 여성은 청소년(15-18세)(86.7%)과 30대(82.6%), 남성은 30대(83.3%)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시간부족 정도가 크게 차이하지 않는 반면, 남성홀벌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4.4%p, 여성홀벌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48.8%p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



5-1. 건강상태

가. 주관적 건강상태

-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전체 평균 5.45점으로 보통 이상이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함(여성 5.22점, 남성 5.67점)
- * 평소 자신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측정(응답값이 10점에 가까울수록 평소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 *15세 이상 조사 값
-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높지만, 청소년(여성 6.26점, 남성 6.88점)과 20대(여성 5.73점, 남성 6.34점), 그리고 60세 이상(여성 4.67점, 남성 5.24점)에서 성별 차이가 큼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음(여성 2016년 5.64점→2021년 5.18점, 남성 2016년 6.13점→5.62점)

나. 정신건강

- 최근 1년 동안의 우울감(여성 14.5%, 남성 11.5%), 자살생각 경험(여성 5.1%, 남성 4.0%)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15세 이상 조사 값
- 남녀 모두 40대(여성 15.6%, 남성 12.5%)가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고, 청소년(여성 11.1%, 남성 9.0%)이 가장 낮음
 - 자살생각 경험의 경우, 여성은 청소년(6.4%)과 40대(6.7%)가 가장 높고 남성은 40대(4.9%)가 가장 높음
- 특히, 청소년 여성은 6.4%가 자살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소년 남성은 1.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아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우울감과 자살생각 경험>

(단위: %)

구분		우울감	자살생각
전체	전체	13.0	4.6
	여성	14.5	5.1
	남성	11.5	4.0
여성	15세~18세	11.1	6.4
	19세~29세	13.6	4.6

구분		우울감	자살생각
	30세~39세	13.9	5.6
	40세~49세	15.6	6.7
	50세~59세	14.9	5.1
	60세 이상	14.8	4.1
남성	15세~18세	9.0	1.7
	19세~29세	10.3	3.5
	30세~39세	10.5	3.8
	40세~49세	12.5	4.9
	50세~59세	12.3	4.3
	60세 이상	12.2	4.1

5-2. 외모차별 피해경험 및 인식

가. 외모차별 피해경험

- ‘외모차별 피해경험이 있다’ 9.7%(여성 10.1%, 남성 9.3%)
 - ‘직장 또는 학교’ 4.3%, ‘구직활동 과정’ 3.5%,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 2.6%, ‘소개팅·맞선 등’ 2.6%, ‘동호회, 동아리 등 각종 모임’ 1.4% 순
 - ‘소개팅·맞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외모차별 경험이 높은 가운데, 직장 또는 학교에서 외모차별을 경험한 여성이 남성보다 1.2%p(여성 4.9%, 남성 3.7%)로 그 차이가 가장 큼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외모차별 피해경험이 눈에 띄게 줄어듦(2016년 18.1% →2021년 9.7%)

나. 외모 및 체형 인식

- (외모 만족도) ‘본인의 외모에 만족한다’ 73.0%(여성 68.5%, 남성 77.5%)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외모 만족도가 증가함(여성 2016년 67.1% →2021년 68.5%, 남성 2016년 76.5% →2021년 77.5%)
- (체형 이미지) ‘본인의 체형이 보통이라 생각한다’ 60.1%(여성 59.4%, 남성 60.8%)
 - 자신의 체형을 뚱뚱한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 24.8%, 남성 22.3%인 반면, 마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 15.8%, 남성 16.9%로 여성이 남성보다 체중 증가에 따른 체형 이미지를 민감하게 인식함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우 마른 편, 보통이라는 인식은 증가하고 뚱뚱한 편이라는 인식은 감소(2016년 27.9% → 2021년 24.8%)한 반면, 남성은 뚱뚱한 편이라는 인식이 증가(2016년 21.1% → 2021년 22.3%)하고 마른 편이라는 인식이 감소(2016년 19.4% → 2021년 16.9%)함

- (다이어트 경험) '다이어트 중이다' 15.2%(여성 16.4%, 남성 14.1%),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하고 있지 않다' 33.8%(여성 39.3%, 남성 28.3%)

*15세 이상 조사 값

-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집단에서 성별 격차는 50대에서 가장 크고(여성 18.5%, 남성 10.8%), 20대에서 가장 낮음(여성 23.3%, 남성 22.6%)
-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성별 격차는 청소년(여성 57.3%, 남성 29.6%), 20대(여성 43.9%, 남성 24.3%) 순으로 큼

6 인권과 안전

6-1. 폭력 용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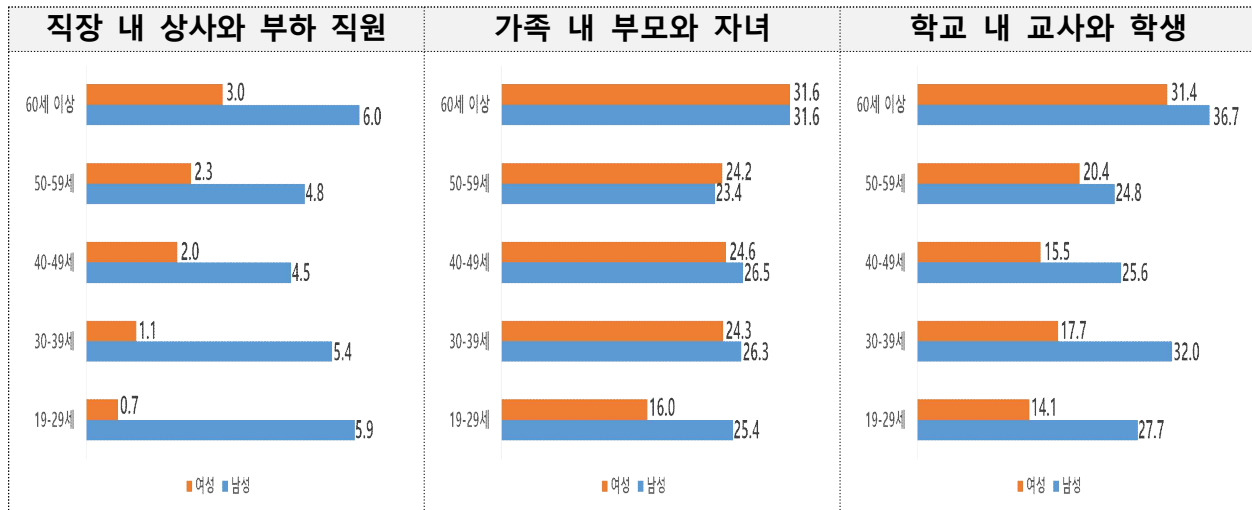
- 2016년에 비해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폭력 용인 정도가 감소함

<폭력 용인 정도>

(단위: %, %p)

구분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가족 내 부모와 자녀		학교 내 교사와 학생	
	2016년	2021년	2016년	2021년	2016년	2021년
전체	5.1	3.7(▼1.4)	36.4	26.1(▼10.3)	41.1	25.7(▼15.4)
여성	2.7	2.0(▼0.7)	36.8	25.3(▼11.5)	37.8	21.6(▼16.2)
남성	7.6	5.4(▼2.2)	36.1	27.0(▼9.1)	44.5	29.9(▼14.6)

-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폭력 용인 정도가 낮은 가운데, 특히 학교 내 교사와 학생 사이의 폭력 용인 정도에서 성별 차이가 큼(여성 20.9%, 남성 29.1%)
- 남녀 모두 모든 문항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폭력 용인 정도가 높음
 -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가족 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폭력(여성 31.6%, 남성 31.6%)'과 '학교 내 교사와 학생 사이의 폭력(여성 31.4%, 남성 36.7%)'은 10명 중 3명이 허용함



6-2. 온라인 범죄 피해 불안

- ‘나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될까봐 불안하다’ 68.0%(여성 72.8%, 남성 63.3%) *15세 이상 조사 값
- 여성의 경우 20~40대에서 80%를 상회하는 높은 불안도(20대 80.8%, 30대 85.3%, 40대 81.2%)를 보였으며 남성은 30~50대에서 70%에 가까운 불안도를 보임(30대 68.2%, 40대 69.0%, 50대 68.2%)
 - 청소년, 20대, 30대 여성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20%p 가까이 더 불안해 함(성별 격차 청소년 18.9%p, 20대 18.7%p, 30대 17.1%p)
-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 50.3%(여성 60.3%, 남성 40.3%) *15세 이상 조사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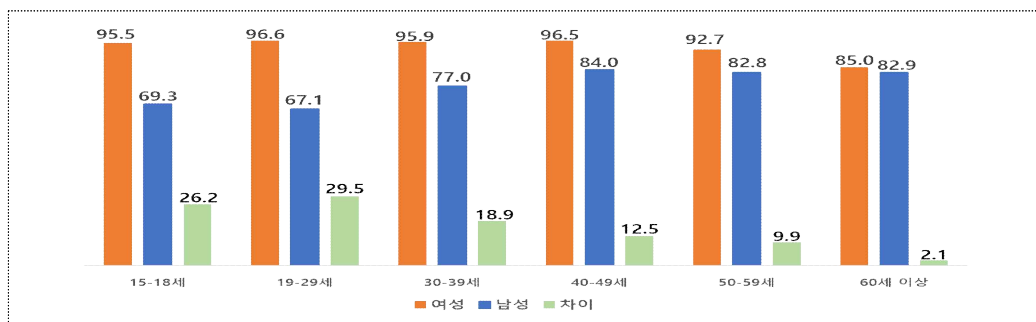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 및 범죄 사용 피해 불안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 불안
전체	전체	68.0	50.3
	여성	72.8	60.3
	남성	63.3	40.3
여성	15세~18세	71.5	66.5
	19세~29세	80.8	74.1
	30세~39세	85.3	74.1
	40세~49세	81.2	68.4
	50세~59세	77.5	60.8
	60세 이상	55.1	40.8
남성	15세~18세	52.6	35.6
	19세~29세	62.1	36.9
	30세~39세	68.2	42.0
	40세~49세	69.0	43.7
	50세~59세	68.2	44.6
	60세 이상	54.7	36.6

6-3. 여성폭력 및 성적 대상화 등 문제의 심각성

가.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 85.7%(여성 92.1%, 남성 79.3%)
 - 여성폭력의 심각성 인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크게 높지만, 남성 또한 80%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절대적 수준에서는 여성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음
 - 60세 이상(85%)을 제외하고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율이 95% 내외임
 - 반면, 남성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높지만 청소년과 20대에서만 70% 미만으로 낮음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폭력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증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감소함

<여성폭력의 심각성>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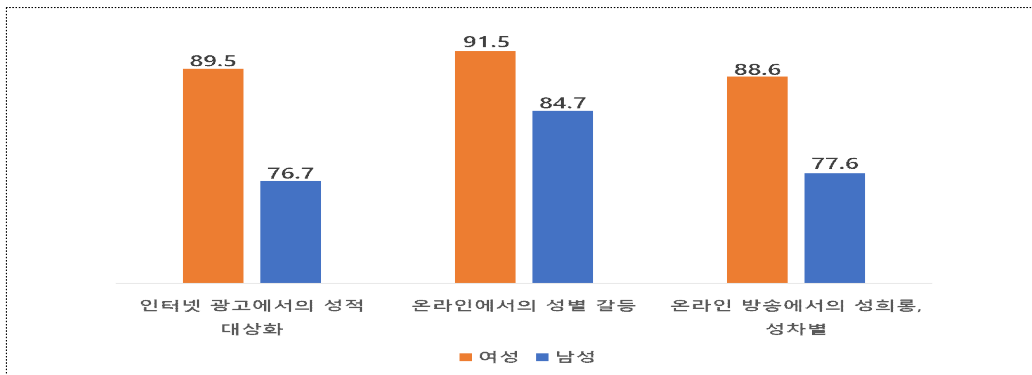
구분	2016년도		2021년도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전체	17.9	82.1	14.3(▼3.6)	85.7(▲3.6)
여성	11.2	88.8	7.8(▼3.4)	92.1(▲3.3)
남성	24.7	75.3	20.7(▼4.0)	79.3(▲4.0)

* 심각하지 않다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심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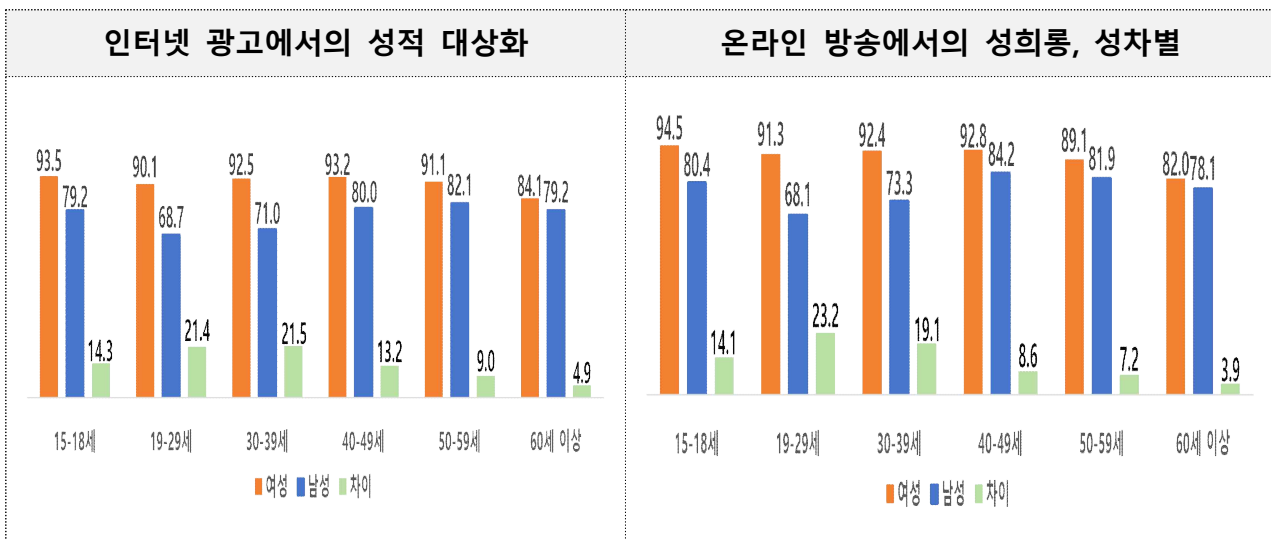
**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심각하다’

나. 온라인 성적 대상화와 성별 갈등 등 문제의 심각성

- ‘인터넷 광고에서 성행위나 신체 일부분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심각하다’ 83.2%, ‘온라인에서의 성별 갈등이 심각하다’ 88.1%, ‘온라인 방송에서의 성희롱, 성차별이 심각하다’ 83.1% *15세 이상 조사 값



- 특히 인터넷 광고에서의 성적 대상화(20대 21.4%p, 30대 21.5%p), 온라인방송에서의 성차별, 온라인 방송에서의 성희롱, 성차별(20대 25.2%p, 30대 19.1%p)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60세 이상 여성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여성의 90% 이상, 40대 이상 남성의 약 80% 이상이 공감함



7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7-1. 소득수준 및 구직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수준이 감소했다’ 42.4%, ‘변화가 없다’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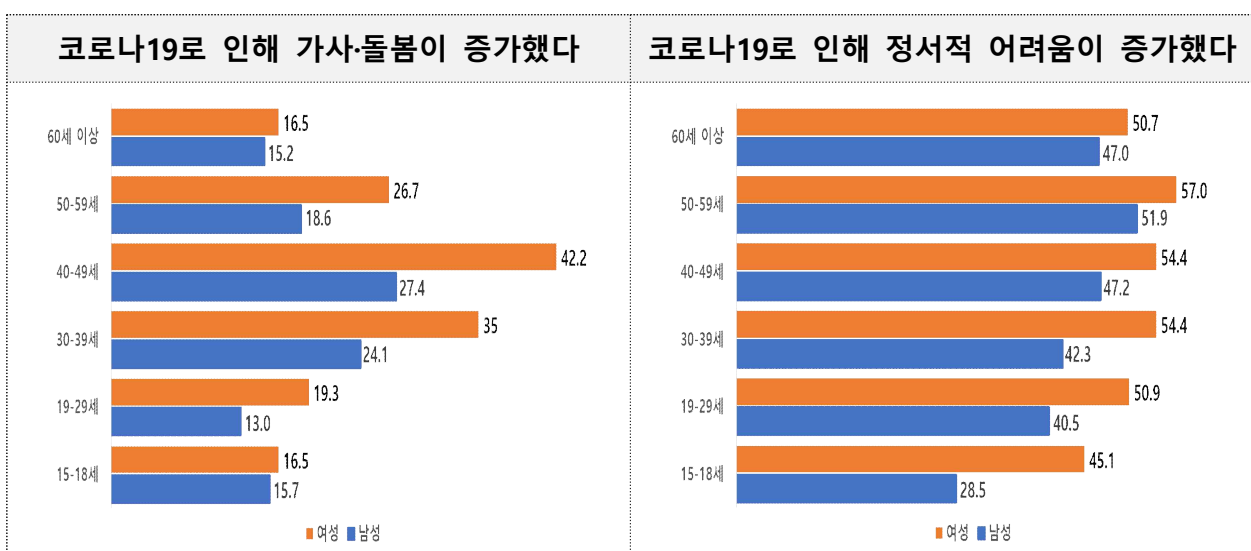
- ‘소득수준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남성(43.0%)이 여성(41.9%)보다 높은 반면, ‘구직의 어려움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여성(37.0%)이 남성(33.9%)보다 높음 *15세 이상 조사 값

7-2. 가사·돌봄 및 재택근무

-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돌봄 부담이 증가했다’ 22.6%(여성 26.0%, 남성 19.1%)
 -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사·돌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특히 30대, 40대 여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 *15세 이상 조사 값
 - 남성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40대에서 가사·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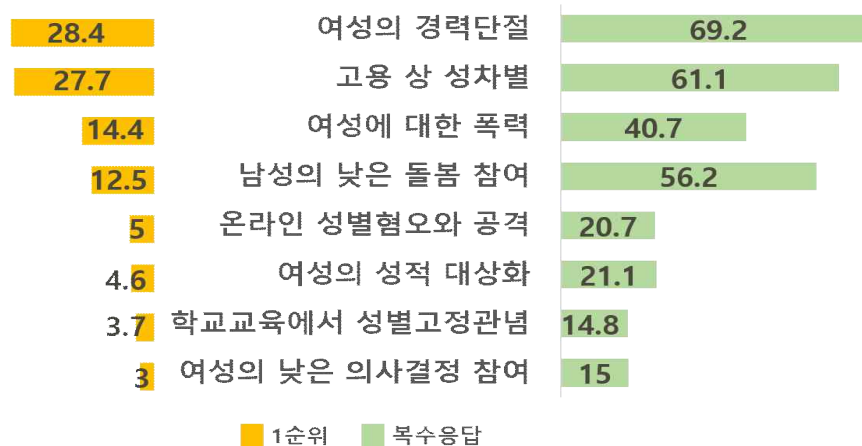
7-3. 온라인 활동 및 정서적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게임, 유튜브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했다’ 50.5%(여성 52.4%, 남성 48.7%) *15세 이상 조사 값
-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 무력감, 절망감 등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했다’ 49.6%(여성 53.9%, 남성 45.3%) *15세 이상 조사 값
 - 청소년을 제외하고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 이상이, 남성의 경우 40% 이상이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함
 - 성별 차이는 특히 청소년에서 16.6%p로 크게 나타남(여성 45.1%, 남성 28.5%)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1순위)는 ‘여성의 경력 단절(28.4%)’, ‘고용 상 성차별(27.7%)’, ‘여성에 대한 폭력(14.4%)’, ‘남성의 낮은 가사·육아·돌봄 참여(12.5%)’ 순 *15세 이상 조사 값
- 남녀 간 성불평등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
- 여성은 ‘경력단절(32.0%)’, ‘고용 상 성차별(26.4%)’,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14.8%)’, ‘여성에 대한 폭력(14.5%)’ 순이나,
 - 남성은 ‘경력단절(24.8%)’보다 ‘고용 상 성차별(29.0%)’을, ‘낮은 돌봄 참여(10.2%)’보다는 ‘여성에 대한 폭력(14.2%)’ 해결을 더 중요하다고 봄
 -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온라인 성별 혐오와 공격문제(여성 2.5%, 남성 7.4%)’, ‘학교 교육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여성 2.5%, 남성 4.9%)’ 해결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한 복수응답결과, 69.2%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61.1%가 ‘고용 상 성차별’을 선택함



-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전 연령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선택했으며, 특히 30대 여성 중 중요하다는 응답이 85.1%로 압도적으로 높음
- ‘온라인 성별 혐오와 공격’, ‘여성의 성적 대상화’, ‘학교교육에서의 성별 고정관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짐

- '온라인 성별혐오와 공격'의 경우 20대 남성 48.0%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선택함(청소년 44.5%, 30대 35.9%)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1+2+3순위, 단위: %)

구분		고용상 성차별	경력 단절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	여성의 낮은 의사결정 참여	여성 에 대한 폭력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별 혐오와 공격	성별 고정 관념
여 성	15세~18세	47.8	55.0	39.3	8.4	48.5	41.6	46.2	12.2
	19세~29세	59.0	68.7	45.6	12.1	46.5	32.6	23.2	12.0
	30세~39세	59.2	85.1	63.3	8.7	34.5	22.2	14.8	11.3
	40세~49세	61.5	77.0	66.0	13.8	37.9	18.9	12.5	12.0
	50세~59세	66.9	71.5	61.0	16.0	37.8	20.8	13.6	12.2
	60세 이상	64.8	71.5	68.3	15.1	48.4	13.5	8.1	10.1
남 성	15세~18세	55.0	48.5	35.6	15.0	37.9	30.3	44.5	29.8
	19세~29세	47.2	58.1	40.4	10.2	35.6	24.8	48.0	31.0
	30세~39세	50.4	68.7	48.2	8.3	44.6	22.7	35.9	18.4
	40세~49세	59.5	70.8	52.9	18.1	38.1	19.8	21.3	17.7
	50세~59세	65.8	64.8	51.9	21.9	39.3	20.8	20.4	14.4
	60세 이상	71.4	66.3	60.8	21.2	38.8	17.8	12.7	10.7

□ 제1차, 2차 양성평등실태조사 비교

구 분	제1차 양성평등실태조사(2016)	제2차 양성평등실태조사(2021)
조사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 청소년 대상 별도 조사표 제작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조사 규모	4,004가구(7,659명 중 7,399명 응답)	4,490가구(8,726명 중 8,358명 응답)
조사 주체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기간	2016.9.20.~10.6.	2021.9.27.~10.12. * 추석연휴(9.20.~9.22.)에 따라 1주 연기
소요 예산	347백만원	446백만원

○ (조사내용)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문항 수정·추가, 정책 활용도 낮은 문항 삭제 (* 진한 밑줄은 2021년 조사 신규 문항)

영 역	조사항목	청소년
I. 성평등 의식 및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 성별분업 및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 변화하는 성역할 및 젠더관계에 대한 태도 - 사회 영역별 양성평등 수준 - 정책 수요 - 5년 후 양성평등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II. 가족 가치관 및 가족생활	- 돌봄의 탈가족화에 대한 견해(돌보는 사람, 돌봄 비용, 돌보는 장소)	X
	- 가족 구성(결혼,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
	- 부부간 역할 분담과 갈등, 평등 수준 - 자녀 돌봄 참여 정도	X
III. 사회관계 및 사회참여	- 사회적 네트워크 - 정책과정 참여 경험 및 의사 - 정치 활동 참여 및 관심 - 온라인 활동 및 정보 네트워크 - 관심을 가지는 사회 현상 및 정보 습득 매체	◎

영역	조사항목	청소년
IV. 시간 활용	- 현재 사용하는 시간 및 희망 사항 - <u>시간 부족 정도</u>	◎
V. 건강	- 전반적 건강 - 슬픔과 절망감 - <u>자살생각</u> - 고민 거리 - 외모차별 피해 경험 - 외모에 대한 자신감, 다이어트 - <u>성/재생산 건강권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u>	◎
VI. 인권과 안전	- 폭력에 대한 허용도 - <u>폭력 목격자 행동 의지</u> - <u>낮선 사람/지인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경험</u> - <u>온라인 범죄 피해 불안</u> - 여성 폭력의 심각성 - 여성 성적 대상화 문제의 심각성	◎
VII. 경제활동	- 경제활동 상태 - 취업자의 가사/양육 병행 어려움 - 임금근로자: 성차별적 조직 문화, 일-생활 균형 제도 이용의 용이성 - 자영업자의 어려움 - 비취업자: 구직 활동, 직업 훈련, 창업 의향	X